

마에다 노부아키 Maeda Nobuaki

2016. 11. 08 - 12. 05

대지 - 수직과 수평 The Earth-Vertical and Horizontal

스가 아키라 (Suga Akira)

마에다 노부아키는 큐슈의 지방 도시 "구마모토"를 거점으로 물질이나 색채 등의 본질적 요소로 환원하는 미니멀리스트한 회화의 작업을 계속했다. 그것은 이지적(理智的), 규명적(糾明的)인 회화가 익숙하지 않고 『조형적(造型的)』으로 사용되어 온 일본 예술 풍토에 매우 드문 제작 태도이며 40년 이상 그것을 계속 해왔다는 사실에 엄청난 에너지와 신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어쩌면 마에다에게 그것은 신념이라기보다는 제작의 기점으로서 회화가 목표로 하는 지평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편이 정확한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마에다의 회화는 스스로 들어나게 함(일부로 들어냄)이 없다. 마에다는 화단에 보이는 많은 추상 회화의 상투화된 조형 언어의 구문을 사용하고 보란 듯이 그림 만들기의 비법을 화면상에서 보이는 모습에 난감해 하고 있다. 물론 제작과 경험, 법칙을 말 하는 것이지만 어디를 향하는지는 더 본질적인 것이며 그것이 흔들리면 어떤 기교나 숙련이나 장식적 공예적일 수밖에 없다. 일체의 장식, 문학적, 재현성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회화와 마주보는 마에다의 성실한 "시선=정신"이 제작의 기점이 되고 그 작품의 존재를 증명 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의 KID AILACK ART HALL에서 개인전에 출품한 대작은 무채색에 가까운 검은 색과 갈색 같은 억제된 색채가 스며든 세로로 늘어진 낮은 캔버스에 종류가 다른 2개의 선이 수직으로 가로지르고 있다. 형상 및 요소, 재질 등에서 일견 버넷 뉴먼과 모리스 루이스와의 친밀성을 느끼게 하는 이 작품은 대지를 테마로 한 시리즈이지만, 그 제작 과정을 알면 과격함 때문에 적잖이 놀라게 된다.

우선 아크릴 물감 등으로 기본적으로 착색된 생canvas(raw canvas) 캔버스를 대지에 되돌리는 것처럼 비바람에 노출, 풍화와 열화, 오손을 행함으로써 흑도와 갈색 계열의 진흙 같은 둔한 색채로 메워진다. 거기에 모래와 물로 연마, 세척하고 햇볕에 널어 건조시킴으로써 캔버스는 훼손되면서 복잡한 회색의 조화를 동반한 천으로 변화하고 더 숙성 되어진다. 마지막은 물로 씻어(때로는 가필하면서) 마무리하는데 이 거친 수작업은 회화보다는 현대 조각이나 프로세스 아트 작가의 격렬한 제작 현장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캔버스는 단순히 그려지는 전제로서나 형상적 이미지 이거나 하는 것을 넘어 작가의 신체와 동기화되어 혈육화한 사물로 전환한다. 그 사물화 과정에서 마에다는 세계에 몸을 두면서 내촉각적(內觸覺的)의 회화를 심화 시키는 것이다. 마에다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그의 회화가 지향하는 지평, 단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존재와 세계와의 관계를 가시화하는데 있다.

마에다의 회화는 2013년경에서부터 순도 높은 색채가 등장한다. 또 직사각형의 화면에 수직선만 아니라 수평선이 화면 중앙에서 교차하게 된다. 화면은 거의 정방형에 가까운 1.085:1이라는 비율로 약간 길다. 마에다는 이 비율은 경험에 의해서 스스로 찾아내었다고 하는데 이 『성스러운 숫자』의 비례를 가진 직사각형은 색깔과 공간을 일체화하는 좋은 비율이라고 한다. 당연히 프레임은 수제품으로, 캔버스도 천의 조직이 살아있는 마포와 중앙에 달리는 수직, 수평이 십자 모양의 선은 그은 선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이다. 이 약간 상징적으로 느껴지는 십자는 단순한 형상도 무언가의 상징도 아니다. 거의 단색으로 도포된 화면은 이상한 흔들림과 빛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동요의 정체가 화면을 분할하는 수직과 수평 라인에 기인하는 것은 분명하다. 마에다는 말한다.

"나의 수직선, 수평선은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는 중력으로의 수직성을 나타내고 대지를 의미하며 세계가 진행되는 감각을 이끄는 것이 수평성이다." (작가 노트중)

우리는 수직 기둥과 벽, 수평인 바닥과 테이블이 있는 세계에 살고, 그것들을 근거로 살아 있다. 분명히 신체성을 동반한 중력 감각과 수평 지향은, 회화의 근원적 요소인 직사각형 프레임으로 이미 구조화되고 있다. 물론 그것을 전제로, 그 물리적인 프레임 속에서 자아내는 회화 행위는 에드먼트 후설이 말하는 "생활 세계(자연스러운 일상적 경험에서 기인하는 삶을 사는 세계)"에 다름없다. 그러나 누구나 지각하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회화의 기본요소인 수직, 수평을 공기 같은 존재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다. 마에다의 그림은 그 본성을 주도한 절차에 의한 정밀한 회화 행위에서 구현화 하는 것이다. 아크릴 물감(또는 수지로 안료를 반죽한 것)을 얇게 개어, 일부러 붓으로 선을 남기면서 30회에서 50회 정도 발랐다는 그 표면은 수분을 포함시킨 화면에서 컨트롤된 스테이닝(염색 포함)기법에 의해서 충족된다. 그 화면은 색을 올리는 것 아니라 색이 거기에 있게 바름으로써 캔버스, 물, 물감들이 일체가 된다. 물감의 존재감보다 발광체처럼 안쪽에서 반짝임으로 투과한 표면은 깊고

아름다운 색채로 자리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인은 불가피하게 여백의 부분으로 떠오르지만 남겨진 라인(수평)과 그어진, 혹은 스크래치된 라인(수직)라는 다른 요소가 그림 공간에 포함된다. 그는 선의 생성을 위한 정교한 작업으로 우리의 시지각(視知覺)은 이 형용하기 어려운 동요의 감각을 느낀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일루전(환상)의 효과 등이 아닌 숭고한 색채와 질서 있는 화면이 자립적 존재로 된 것을 알리는 계기이다.

마에다는 2016년 4월 14일과 16일 구마모토 지진으로 재해를 입었다. 2차례 진도 7을 기록한 전대미문의 격진 — 특히 16일의 본진에서는 다가오는 죽음의 예감 속에서 온 종게도 자신의 삶을 확인했지만 땅이 물결치고 흔들리는 자연의 경이에 미술이 전혀 무력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절망과 허탈함에 휩싸였다고 말한다. 가장 신뢰하고 있던 <그라운드=대지>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로 설 자리를 상실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것은 그의 작품 제목에 자주 사용되어 왔다. 『대지』라고 하는 키워드가 문자대로 흔들리고 살아가는 모든 기반이 불확실한 것으로 된 순간이기도 했다. 그것을 상징하듯 작업실에 있는 구작과 제작 중의 많은 작품이 파괴되는 불행도 맞이하였다. 지진 피해의 심대함에 더해 계속 이어지는 여진은 사람들의 정신을 좀먹게 하고, 반복되는 여진과 건물 붕괴의 위기 속에서 차 안에서 숙박할 수밖에 없는 신체적 정신적 한계 상황의 나날은 당연한 일상적 행위를 송두리째 부정하게 한다. 작품의 파괴는 단순한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마에다의 정신적 신념이 흔들리는 제작의 위기가 찾아왔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더욱이 예정되었던 Gallery SHILLA(대구, 한국)에서의 개인전의 연거나 중단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안부 확인 차 나누던 마에다와 메일에서 (4월 19일자) 그는 불안한 정신 상태에서 미술가로서 지진에 맞서는 결의를 표명하고 있다.

"(전략) 강한 여진이 아직 있습니다. 구마모토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 작품도 몇 점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작에 힘쓰겠습니다. 저는 예술가 아니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자에게의 메일)

이 지진으로 마에다의 『그림=대지』은 일단 리셋 된 감이 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지금이야말로 마에다가 이로 인해 그의 회화를 통해서 추구하고 지향한 땅과 인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묻는 때가 아닐까? 작품과 그림을 위한 순수한 영위가 지진으로 순식간에 와해되면서, 중력의 의미와 수직 수평이라는 항상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시작되는 것이다. 또 그것은 개인의 문제와 아울러 사회적 존재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미술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마에다가 추구했던 회화의 진정한 가치는 이번 지진을 통해 회화의 가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그것은 지진에 대항하여 무력한 미술이 인간 정신의 근간 부분을 담당한다고 한 역설이기도 하다.

1755년 리스본 지진은 18세기 이후 유럽의 정신세계에 이른 그림자를 드리운. 볼테르, 루소, 칸트와 같은 당시의 사상가나 철학자가 자연에 대항하여 무력한 미술이 인간정신의 근간을 담당한다는 것을 언급하며 그 영향은 그 후의 자연관, 과학관, 철학관의 변화를 일으키기까지 했다. 특히 칸트가 자신의 철학 속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발전시킨 『숭고(崇高)』는 20세기 들어 뉴먼을 비롯한 미국의 추상 화가들의 큰 지표가 되어 갔다.

마에다도 또 숭고하다는 개념에 회화의 본질을 참조시킨 미술가의 한 사람이다. 모더니즘 회화의 자기 비판성을 계승하면서 『아름다운』 조형성과 『숭고한』 정신성과 갈등 속에서 자기에 부여된 모든 예술 형식을 잠재우면서 새로운 구상(컨셉)을 그림에 불어넣은 것이다.

예술 미래 도시 — 대구의 Gallery SHILLA에서 개인전에 마에다의 열기는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스케일감 있는 백색의 화랑 공간은 마에다의 깊은 아름다운 색채와 매혹적인 유형을 가진 작품을 돋보일 것 없다. 최근의 신작에 여러 색채가 등장하고 있지만, 특히 코발트 블루와 세루리안 블루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지진 체험 이후 이 안료들은 마에다에게 미래로 나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색이 되었다. 이 고전적 자연 안료는 발색이 잘 되고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입자가 빛을 불러들이고, 깊은 공간과 발광하는 빛을 가져온다. 물론 피그먼트(안료)에 의존하지 않고 기저재 • 안료 • 물 • 화가의 행위에 의해서 시간성을 포함함으로써 화면은 『숭고』라는 영역으로 올라오게 된다.

구미의 표준적 미술양식이나 특정 아트 장면에 빠지지 않고 구마모토라는 지방 도시에서 40년 동안 회화의 목표로 하는 지평을 계속 쳐다봤던 마에다 노부아키. 이번 개인전은 전혀 속박 없는 대구라는 중립적인 장소에서 그의 미래를 위한 상상력과 모험심이 충분히 발휘되는 계기이기도 하다. 지진이라는 고난을 넘어 더 명쾌한 구상력(컨셉션)을 획득한 마에다의 새로운 『대지=그림』을 체감할 것이다.

* 스가 아키라

- 1) 오이타 시티 미술관 관장
- 2) 미술 비평가